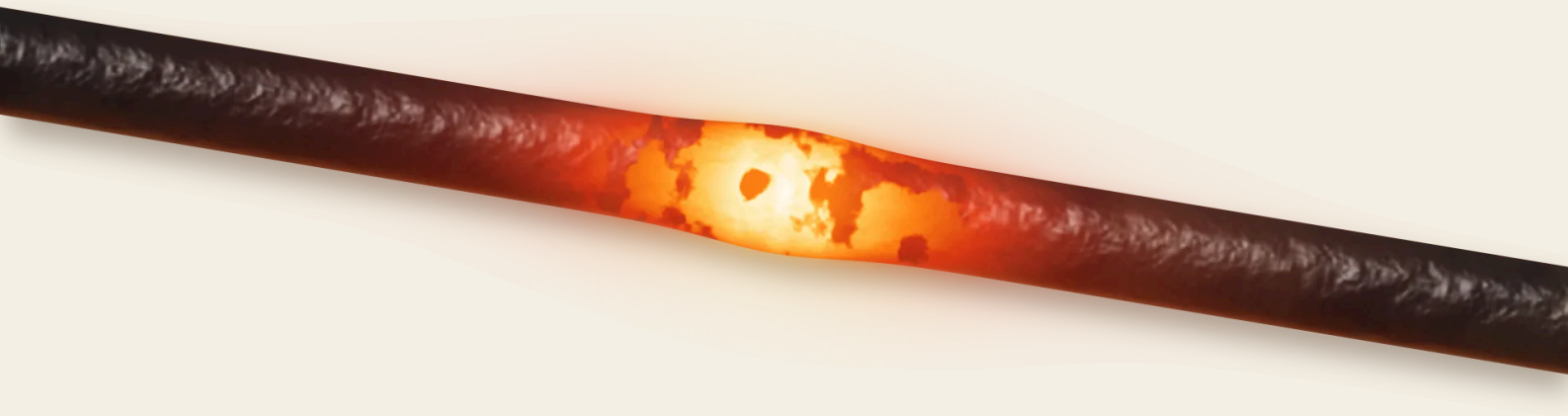
대장간 프로젝트

너를 위한 나의 변화

닿기 위해, 나를 두드립니다.



01	02	03	04	05
알아차림	**멈춤**	**바라봄**	**선택**	**도움**

서로 다른 두 쇠를 달궈 다섯 번 두드리면 하나로 붙습니다. 이 다섯 번의 망치질이 대장간의 방법입니다.

하나 · 시작

닫힘의 시대

우리는 많은 것에 연결되어 있는 시대에 삽니다. 그런데 관계는 많아도 마음을 나눌 곳은 줄어들고, 말은 많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일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닫힘**입니다. 닫힘은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도 조금 덜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조금 덜 기대하고, 조금 덜 묻고, 조금 덜 다가갑니다.

닫힘은 특별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처를 피하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만 그 작은 선택이 반복되면 기준이 되고, 기준은 굳어 구조가 됩니다.

처음에는 문이었던 것이 어느새 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나 새로운 기술보다, **다시 열리는 과정**입니다. 대장간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둘 · 관계

나와 너

세상을 이루는 가장 단순한 관계는 두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너.** 그 너는 사람일 수도, 자연일 수도, 우리가 겪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는 내가 분명하게 존재할 때 건강해집니다. 내가 흔들리면 우리는 쉽게 오해하고 방어하며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습니다. 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타인에게서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이해하고, 나의 반응을 다시 선택하는 것. 이 작은 변화가 관계를 바꿉니다. 그래서 대장간의 공식은 한 문장입니다.

너를 위한 나의 변화.

이것은 자기 계발의 문장이 아니라, 관계의 방향입니다.

셋 · 마음

감정과 회복



감정은 계산서입니다

대장간은 감정을 좋다거나 나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감정은 관계 속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일이 있다는 표시, 마음속 계산서이기 때문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작은 감정이 쌓이면 우리는 조금 덜 믿고, 조금 덜 기대하며, 점점 조심스러워집니다. 관계는 큰 사건으로 끊어지기보다 그렇게 조용히 멀어집니다.

회복은 다시 반응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해지는 것, 덜 흔들리는 것을 회복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닫힘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대장간이 말하는 회복은 **관계에서 다시 반응할 수 있는 힘**입니다. 반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상처가 남아 있어도 다시 말을 건네는 선택. 그래서 회복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방향이고,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 속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넷 · 방법

다섯 번의 망치질



감정이 올라오면 곧바로 반응하고,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결론을 내립니다. 대장간은 그 반응 사이에 작은 공간을 만듭니다.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누구나 알지만 자주 건너뛰는 다섯 가지입니다.

01 **알아차림**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판단하지 않고 알아차립니다.

02 **멈춤**
곧바로 반응하지 않고, 반응을 잠시 보류합니다.

03 **바라봄**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무엇이 마음을 건드렸는지 조용히 살핍니다.

04 **선택**
같은 감정 위에서도 다른 반응을 고를 수 있습니다. 회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05 **도움**
모든 것을 혼자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은 의존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이 다섯 단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은 계속 움직이고 감정은 다시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장간에서 쇠를 **다시 달구고 다시 두드리듯**, 사람은 삶 속에서 자신을 조금씩 단련해 갑니다.

다섯 번의 망치질 끝에 피는 불꽃 다섯 획은 스미디 로고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다섯 · 공동체

나에서 우리로

대장간은 공동체를 목표로 하지만 공동체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사람을 모은다고 생기지 않고, 사람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관계를 다시 선택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개인 안에 공동체가 있고,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섯 · 원칙

대장간이 지키는 다섯 가지

1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감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옳은지 그른지 말하기보다, 어디에서 왔는지 함께 봅니다.

3 **강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회복은 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반응하는 힘입니다.

4 **대신 두드려 주지 않습니다.**
두드리는 것은 각자의 몫이고, 대장간은 그 자리와 방법을 준비합니다.

5 **천천히, 함께 갑니다.**
한 번의 해결보다 삶 속에서 이어지는 반복을 믿습니다.

일곱 · 만드는 사람

두 손 사이의 대장간

대장간 프로젝트는 신부님과 개발자가 함께 시작했습니다. 오래 사람을 만나 온 손과 도구를 만드는 손입니다.

서로 다른 두 쇠를 달궈 두드리면 하나로 붙습니다. 대장장이들은 이것을 단접이라 부릅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과 무언가를 만드는 일이 그렇게 만나는 자리가 대장간입니다.

대장간의 생각은 신앙에서 자랐습니다. “보이는 것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한다”는 처음의 마음을, 누구나 아는 말로 건네려 합니다.

여덟 ·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것

대장간은 하나의 장소이면서 하나의 방법입니다. 누군가 멈추고 자신을 바라보고 다시 선택하는 순간, 그 자리는 이미 대장간입니다.

일상의 감정을 기록하는 도구

앱

오늘의복음 · 오늘의기도 · 일렁 · 테스트미 · 스타투스타

운영 중

멈춤의 시간을 주는 공간

피정과 프로그램

성찰·회복 프로그램, 모임과 강의를 위한 공간

성찰을 돕는 새 앱

가만 · 마음쓰기

멈춰서 나를 비춰 보는 앱, 전날 받은 문장을 품고 하루를 산 뒤 마음을 적는 일기 앱

준비 중

그렇게 만든 브랜드, 스미디

대장간에서 두드려 만든 것은 스미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갑니다. 대장간이 일하는 방식이라면, 스미디는 그 일이 한 사람의 하루에 닿는 모습입니다.

smithee.app



사람은 완전히 닫히지 않습니다. 때로 지치고 방어하지만, 여전히 열려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변화는 언제든 시작될 수 있고, 아주 단순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나.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너에게.**

너를 위한 나의 변화.

함께 두드릴 곳을 찾고 있습니다. 본당과 수도회, 학교와 기관 등 마음과 삶을 돌보는 일을 하는 곳이라면 프로그램과 공간, 앱으로 함께할 길을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협력 문의하기

smithee.app/contact

대장간의 철학

smithee.app/forge

대장간 영성 블로그

blog.naver.com/smithee-os